

영암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호응'

내달 13일까지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접수

영암군이 시행에 들어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14일부터 다

음달 13일까지 1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이 제도는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영암군은 고령자 20명에 한하여 인센티브로 영암사랑

상품권(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지난 16일 현재 지역 고령운전자 1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접수에 들어간 지 3일 남짓 흘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노인 중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

을 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영암경찰서 민원실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운전감각 및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줄여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판소리극 모듈전' 초청 공연

내일 향토문화회관대공연장서

2019 진도문화예술제 세번째 초청 공연인 '판소리극 모듈전'이 22일 오후5시에 향토문화회관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판소리극 모듈전'은 2019년 문화예술평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공모 작품으로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 드 파리'를 새로이 전통 판소리극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고려 무신정권의 암흑기, 벽란도 무량사를 배경으로 광기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군상들을 통해 무엇이 암흑의 감추어진 주제이고, 무엇이 거짓과 진실이며, 무엇이 진정 아름답고 추한지를 집

요하게 파헤침으로써 그 예술적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총 12장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진도군 지산면 소포 출신 주호중 연출로 판소리계 어벤저스들이 문진 모듈전 공연에는 불후의 명곡 판소리 스타 박애리가 사당각시 호란 역을, 소리신동에서 국민소리꾼으로 우뚝 선 유태평양이 짝추 모듈 역을, 중후한 공력의 최호성이 주지 벽파 역을,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가 미남 한량 최자역을 맡았으며, 진도 대한민국 국악에서 퓨전판소리 공연을 선보인 김금미가 출연한다.

진도=조성용 기자

강진만 갈대축제의 볼거리 '국화정원' 준비 구슬땀

개막일에 맞춰 2백만 송이 국화와 다양한 조형물 준비



오는 26일 개막인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국화를 이용한 인공정원 조성에 관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축제에 강진읍 목리 일대 갈대밭을 중심으로 개최되는데 대규모의 갈대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월부터 국화 모종구입을 시작으로 가든뎀 화분 1만 개, 현애작품 및 조형물 45점을 식재하

고 정성들여 키웠고 일부 조형물은 직원들이 직접 꾸며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유아들이 좋아할 다양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핑크플리, 포인세티아 등 다양한 화색의 화단연출로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화정원은 개막식보다 앞서 일찍이 조성을 완료하여 평소 갈대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유지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축제 기간 전후에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통해 축제 분위기와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군 농촌버스' 외관 디자인 교체



장성군 농촌버스가 10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장성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반영해 산뜻하게 변신한 농촌버스 2대를 금주부터 시범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농촌버스의 외부 디자인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디자인 전문가와 업체 및 교통 관계자로 구성된 '디자인 선정 TF팀'이 네 차례에 걸친 협의와 검토 끝에 시안을 마련했으며, 디자인 인은 다시 한번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 선호도 조사 과정을 거쳤다. 선호도 조사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399명

이 참여했다. 확정된 최종 디자인은 노란색(yellow)과 회색(gray)의 그래픽 패턴을 사용해 화사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준다. 또한 주민들이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버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 운행 기간 중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디자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군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컬러마케팅'을 추진해 지역 곳곳을 노란색으로 디자인하고 있으며, 10억 송이 가을꽃친 협의와 검토 끝에 시안을 마련했으며, 디자인 인은 다시 한번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 선호도 조사 과정을 거쳤다. 선호도 조사에는 8월 2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399명

장성=박종영 기자

완도군, 해풍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 수확

당도 13~14 브릭스 · 올해 예상 생산량 130톤 예상

완도군에서는 해풍을 맞고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를 21일부터 본격 수확 · 판매한다. 새콤달콤 완도자연그대로 참다래는 식이섬유소가 바나나의 5배나 되고 비타민C와 비타민E 등도 풍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은데 당도는 13~14 브릭스(Brix)이며, 후숙 기간을 거치면 15브릭스 정도가 된다.

완도군의 참다래 재배 농가는 30농가(11ha)로 올해 예상 수확량은 130톤 정도이다. 해금(골드키위)은 결실량이 많아 20~30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해금(골드키위)은 10월 말, 그린키위는 11월 10일 정도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좋은 참다래를 고르는 방법은 껍질이 윤기 있는 갈색을 띠고, 손가락 끝으로 눌렀을 때 잘 익은 복숭아처럼 약간 말랑말랑하며, 모

양이 고르게 생긴 것이 좋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다래 품질 향상을 위해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과 참다래 품종 갱신 지원 사업, 참다래 신규 과원 조성 및 시설 시범 등을 통해 완도자연그대로 고품질 참다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신기술 공급으로 참다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군,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함평군이 최근 열린 '2019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배출하며 지난 2015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9 전남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남영옥(나산면·여) 씨가 최우수상을, 최현우(함평읍·남)·이정숙(대동면·여) 씨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 농업인 정보화 대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가소득증대를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올해 전남 22개 시·군 모두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영옥 씨는 '가족의 건강과 힘이 나는 밥상을 위해'라는 주제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SNS를 활용한 농·특산물 온라인마케팅 기법을 소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08년 결성된 함평군 정보화농업인연구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11년간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군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은 물론 OTT와 같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도 적극 활용해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판매 저변을 차츰 넓혀갈 방침이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